

사설

해암스님 수행정신 잇자

출가사문의 본분은 자기수행과 중생교화에 있다. 특히 수행은 불교의 종교적 특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불교의 전통적 가풍이기도 하다.

생을 장좌불와에 하루 한끼 공양으로 수행에 매진하였다. 공부에 방해된다 고 하여 신도들을 멀리 했으며, 한겨울 불도 때지 않은 방에서 정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 출가사문들 가운데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사회적, 종단적 여건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스님의 수행정신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해암스님의 대쪽같은 수행가풍을 잇는 일이야말로 자기를 건지고 한국 불교를 건지는 요체라는 점을 출가사문들은 겸허하게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부산 불교계 뜻있는 연대

부산 불교계의 '청정화합 시민연대'가 드디어 창립을 한다. 그동안 승가와 재가가 힘을 모아 준비를 해오던 일이 새해 들어 구체적인 결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시적인 일보다는 구체적인 일에서 성과를 드러내도록 차분하게 움직여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다행히 부산의 '청정화합 시민연대'는 출가자와 재가자들의 구체적인 요구가 창립 배경에 깔려 있다.

한 지역의 불교 시민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부산 지역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 2의 도시라 할 수 있는 큰 도시이고, 그 지역의 불교적 잠재력은 제 2를 불리는 것을 주저할 정도로 막강하다.

양자의 요구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시작한다면 부산의 불교계를 일거에 바꾸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밝고 큰 앞날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그 창립을 축하한다.

사회발전 정책대안 제시 '청정화합 시민연대' 18일 출범

부산 불교단체 연합 상임대표에 정각스님

부산시불교연합회 부설 시민운동단체인 청정화합시민연대(상임대표 정각스님)가 1월 18일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가시화된 청정화합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창립 준비모임을 갖고 상임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을 비롯한 조직과 활동 범위 등을 최종 확정했다.

에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불교 시민운동의 단일화된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 시민운동계의 대부로 통하는 정각스님을 상임대표로 부산시 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부산시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원스님, 부산시불교법조회 안석태 변호사 등이 상임고문을 맡았으며 김로사 주지 혜총스님, 내원정사 주지 정연스님, 진각종 부산경남교구장 일원 정사, 강호일 부산불교언론인협의회장, 김용태 부산교수불자회 회장 등 주요 사찰 주지스님과 신행단체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태고종 종단 간부 스님들이 신년하례식에서 서로 맞절을 하고 있다.

주요종단 시무식

조계종·태고종·천태종·진각종은 신년하례식 및 시무식을 갖고 임오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조계종은 3일 총무원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 교육원장 무비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총무시무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공사와 9월로 예정된 중앙총회의장 선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태고종은 3일 성북구 총무원청사에서 은산 총무원장, 법장 사정원장, 우담 종회부위원장 등 1백여 종단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으며, 천태종(총무원장 운덕)도 2일 구인사에서 시무식을 봉행하고 4년째 '금강대학' 설립 박차, 구인사 광명당 신축 등 종단 불사에 매진하기로 했다.

현대만평

김영민



잘 가꾸자

제보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재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제기는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한 스님이 다비행렬때 사용할 만장(幢章·죽은이를 애도하여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명주나 기(紵)처럼 만드는 것)를 쓰고 있다.

혹한 아랑곳 조문행렬

해인사 불당스 표정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스님이 입적한 지난해 12월31일부터 해인사와 원당암은 영결식 준비와 조문객들의 분향발길로 분주하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 속에서도 차분하고 엄숙함을 잃지 않은 해인사의 표정을 정리했다.

- 스님의 법구는 원당암에서 해인사로 이관됐고 열반을 알리는 범종이 108번 타종됐다. 오후6시 방장 법전스님과 선원, 강원, 출원의 대표와 각 산내암자 도감 및 본사 7직 스님들이 참석해 산중회의를 열어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영결식 준비에 들어갔다.
○ 새해 첫 날인 1월 오후 2시 해암스님의 법구를 입관하고 상좌 스님들이 상복제를 거행했다. 상복제는 속가의 상주들이 상복을 입는 의식과 같은 의미. 보경당에서는 만장을 쓰기 시작했다. 당초 5백여 장을 쓰려 했으나 다음날 1천5백장을 추가 제작하기로 해 6일 영결식에서는 유래 없이 긴 만장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 2일부터는 매일 아침 7시 영결식 준비 실무 스님들의 회의가 진행되어 준비 사항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으며 9시에는 취재기자들에게 하루의 일정과 특기사황들을 전하는 정기브리핑을 가져 일사

다비때 숲·나무 2.5톤 한대분 사용계획 천주교 종교간대화위서도 조화 보내와

- 불란한 진행이 돋보였다.
○ 매일 저녁 6시 산내의 전 대중과 신도들이 해암스님의 법구가 모셔진 공현당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모습도 장엄스러운 풍경을 연출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인사 경내에는 해암스님의 육성법어가 계속 방송되고 있다.
○ 3일에는 조계종 원로부장 법전스님과 총회회장 지하스님,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대표의 조문이 이어지고, 각계의 조전과 조화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분향소는 종단의 지도자를 비롯한 각 계각층의 조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천주교주교회의의 종교간대화위원회에서 보내온 조화가 눈길을 끌었고,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다른 종단 지도자들의 조문도 이어지고 있다.
○ 해암 종정스님을 추모하는 조가(弔歌)도 작곡됐다. 운문스님이 작사하고 정부기 중앙대교수가 작곡한 조가는 6일 영결식에서 조계종 연합합창단에 의해 울려 퍼질 예정이다.
○ 다비장은 해인사 서쪽 2킬로미터 지점으로 성철스님의 다비가 봉행됐던 곳. 거화할 연화대는 직경 3미터 높이 2미터 10센티의 규모로 제작되고 있으며 다비에는 참숯과 2.5톤 트럭 한 대분의 나무가 사용될 계획이다.
○ 자원봉사들의 활동도 특기할 만하다. 기사실과 행정 보조, 공양간 작업등에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보태지고 있다. 해인사 수련회나 인터넷 등을 인연으로 해인사에 온 봉사자들은 "추운 날씨에 절에서 먹고 자는 일이 쉽지 않지만 큰스님의 수행정신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웃음을 보였다.
해인사=김두식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주필: 김병규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3월 1일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소셜: www.mahamai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권장독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曹溪宗 宗正 慧菴堂 性觀大宗師

대한불교 조계종 한 마음 선원
원장 대행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01-62
전화: 031-470-3100
팩스: 031-470-3116

조계종 종정 해암당 성관대종사
예하의 원적을 애도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기재
한나라당 불교 신도회원 일동

종정 해암당 성관대종사 열반을
이천만 불자와 함께 진심으로 애도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불기 2546년 1월 6일
새천년민주당 연등회 회원일동 합장
회장 국회의원 김기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4호
TEL 02)788-2082, FAX 02)788-3224